

완전한 행복은 이긴자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인간의 마음이 곧 신이므로 인간이 어떤 마음을 품으면 그대로 된다

오늘날 신학 교수나 박사들은 신의 본질을 모르면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본질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전부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神)이라는 것은 바로 영(靈)입니다. 그리고 영(靈)에 대해서는 성경에 '인간의 영'이라고 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 곧 신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더도 덜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말 자체입니다.

흔히 "신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보여요? 안보이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고통받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이 고통을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고통을 하지 못한다고 이 사람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신이므로 이 사람이 신으로서 귀신이 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이 신이 아니라면 그게 될 수 있었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 신이므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간의 마음 즉 신이 바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없애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공산주의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바로 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바로 그 마음이 공산주의를 없애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마음이 보통 사람의 마음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이긴자의 마음은 전지전능의 마음이고, 능력이 있는 마음이고로 이 우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고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알아야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다' '종교도 없었다' 하는 말을 이 사람이 23년간 외쳤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신이라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오늘날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을 전부 사람이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뿐만 아니라 불경도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나 불경은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학문이 없다는 이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신이 주장하는 역사가 바로 종교 역사이고로 영생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죽음의 역사이고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기도하고 예배 보면 종교인줄 알고



김주호 목사

있는데 종교라는 것은 바로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이지 죽는 역사, 죽는 종교 단체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죽는 것은 분명히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신이므로 사망의 신에 의해 죽는 것은 진리의 종교 단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생의 단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종교가 될 수 없고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역사가 바로 종교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종교라면 죄가 무엇인줄 알아야 하며 또한 의가 무엇인줄 알아야 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알아야 그것이 종교이지 죄가 뭔지도 모르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이 죄라고 써

어 있지만 오늘날 종교들은 이제 그대로 죄의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욕심이라고 했지만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 부리는 고로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원죄는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먹은 선악과가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인간 속의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아는 종교가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선악과'라는 엄청난 사실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진짜 종교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을 없애는

방법은 <반대생활>

이 세상 사람 중 유일하게 이 사람이 '나'라는 주체의식을 없애 버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반대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생활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일하기 싫어하면 일을 열심히 하며 '나'라는 것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대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기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렇게 나라는 주체의식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마귀의 영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마귀가 앉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되는데 이 때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함을 입었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라는 영적 무덤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죽여버리고 영적 무덤에서 석방되어 나와서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에 앉으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맞고 믿음으로 믿음이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맞지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과일 역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의 영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영생을 쟁취하게 되어 있다

천국에서 사는 자격자는 바로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겨야 하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행복을 영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되어야 가지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탈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벗으려면 사람의 마음을 버려야 하며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의 확신을 갖는 마음이고, 희생적인 마음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자비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나 불경에 "너희는 하나님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불심을 품어라"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경전에 써어진 내용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품으면 하나님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인간으로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참고 견디는 내내력이 강한 마음이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빼죽 나왔다가 그 다음엔 '바쁘니까 다음에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부단한 노력을 가해서 매일 같이 제단을 쌓고 매일같이 감로 이슬성신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세계에서 살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의식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실체는 70여 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므로 무수한 차원으로 나뉘어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프리즘을 통한 햇빛은 파동이 낮은 차원으로부터 높은 차원으로 나뉘어져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의 배열을 나타낸다. 가시광선만 하더라도 7가지 색의 층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파동에 따라 다른 존재 양상을 띠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단지 하나의 생명이라는 유기체를 여러 가지 작용에 따라 다른 명칭을 붙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는 것을 정이라 부르고, 형태는 없으나 물리적 작용을 지니는 것을 기, 그리고 형태가 없어 의식작용에 의한 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기신에 있어서도 각기 자체 내로 보다 많은 구분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빛의 스펙트럼 분류에서 빛을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과 같이 구분하고 또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자외선의 자체 내에서 보다 세밀한 구분이 가능한 것과 같다. 엄밀히 말하면 정기신의 명확한 구분 기준은 없다. 서로 그들과 같이 얽혀 있는 한 실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다. 이러한 정기신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혈, 기혈, 신혈의 인간 삶의 차원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 정혈(精血, Physical Blood) -

육체적, 물질적 차원의 피를 정혈이라고 하고, 정혈로 형성된 몸을 육체(肉體)라고 하며, 사람이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세계를 정혈계(精血界)라고 한다. 정혈이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붉은 액체의 피를 의미한다. 또한 피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림프액이나 기타 체액, 분비액, 호르몬 등과 살과 뼈 등 고체상의 피도 모두 정혈에 속한다.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해부 ② 인간의 의식 차원(피의 스펙트럼)

이러한 정혈로 육체가 만들어진다. 육체는 그 활동공간인 외부의 물질계 자연계를 지니는데 이것을 '정혈계'라 한다. 정혈계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정혈계적 차원의 진동수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다. 보통 사람들의 대다수는 정혈계에서 활동하는데 몸의 세계와 같이 기혈계를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혈이라고 해서 유물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혈은 정혈에 해당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혈이 구유하고 있는 의식차원을 정심(精心)이라고 명명해 보자. 정심은 육체에서 기인하는 동물적 본능과 감각반응을 뜻한다. 즉 그것은 성욕, 식욕, 수면욕 등 가장 기본적인 본능, 감각적 의식 활동이다.

이러한 정혈에 해당하는 육체와 정심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정력(精力) 또는 근력(筋力)이라고 하자. 보통 육체적 활동력이 강한 사람을 보고 흔히 "정력이 넘친다"고 말하곤 한다. 이와 같은 정력은 육체적 근

육운동의 능력, 그리고 성(性)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정혈계 내에서는 피의 순환, 심장박동 등 끊임없이 신진대사 작용이 일어난다. 이러한 정혈 내의 일체의 순환작용을 정혈순환(精血循環)이라 하기도 한다. 일체의 피(血) 순환이 원활할 때, 전 유기체는 건강한 상태가 된다. 만약 피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것은 유기체의 건강 균형이 조화되지 못한 상태로 병적인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피 순환은 단순히 유기체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피 순환은 외부세계와도 밀접한 교류를 한다. 정혈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 및 숨쉬는 공기 그리고 배설작용 등을 통하여 외부세계인 정혈계와 교류한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결국 우리의 몸은 딱딱한 육체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몸 밖의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마신다면 이미 그것은 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소변을 통해 밖으로 나가 또 자연의 일부가 된다. 사실 우리의 육체가 물의 구성비 70%로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외부의 물질과 내 몸이 전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구조이다. 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은 어떠한가? 살아 있는 생물이라면 일상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음식물을 섭취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몸은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또 활동을 통하여 그 원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연으로부터 음식물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물질적 요소에 얽매어 있는 사람을 정혈계 차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정혈계 차원의 사람은 놓고 먹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것을 즐겨하고 고도로 집착한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강한 정신적 압박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사람의 의식의 차원을 정혈계, 동물적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동물적 차원에 해당하는 부류의 사람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많을수록 짐승사회 같은 약육강식(弱肉強食)의 피 튀기는 사회현상을 낳는다.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육구, 의(衣)식(食)주(住)만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동물적 정혈적 사람이라 구분할 수도 있다.

인간을 흔히 '영적(靈的) 동물(動物)'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인간에게는 동물적 속성과 신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인간의 양

면성의 하나인 양심을 신(神), 동물성과 같은 욕심을 마귀(魔鬼)라고 규정하고, 또 신적 요소를 '생명의 요소(要素)', 마귀적 요소를 '사망의 요소(要素)'라고 부르곤 한다. 그렇다면 인간계의 한 표현인 정혈적 차원인 육체도 생명적인 요소, 생소(生素)와 사망적인 요소, 독소(毒素)로 이루어졌음이 틀림없다. 이를 또 다시 육체의 생명의 구간이 되는 피와 몸이라는 가시적(可視的) 차원에서 전자를 '정혈(精血)'이라 하고, 후자를 '마혈(魔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여기서 정혈이란 맑고 깨끗한 생명의 피라 할 수 있고, 마혈은 더럽고 탁한 것은 피라고 할 수 있다(병마라고 병은 마귀가 준다).

인간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육구인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그 가운데서도 당장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문제에 있어 극도로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계를 정혈계적 차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정혈계적 차원의 삶이라는 수많은 인류가 기본적인 육구를 달성하기 위해 각축과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혈계적 차원의 삶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며, 특히 후진국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 정혈계적 차원의 인생은 다각도로 압박을 받으며 불안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결국 씩은 피인 마혈이 몸 안에 점점 많이 축적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차원의 삶은 의식수준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낮고 질병이 많고 단명(短命)하는 양상을 낳는다.*